

법원, 삼선로직스 회생절차 조기 종결

Macro/주요운임

	Last	1D	1W	1M	3M	6M	YTD
Index							
KOSPI	2,024.7	-0.3%	2.7%	2.0%	1.7%	0.3%	3.2%
DOW	19,756.9	0.7%	3.1%	4.8%	7.8%	10.6%	13.4%
S&P500	2,259.5	0.6%	3.1%	4.4%	4.7%	7.8%	10.5%
NASDAQ	5,444.5	0.5%	3.6%	4.0%	4.5%	11.2%	8.7%
NIKKEI225	18,996.4	1.2%	3.1%	9.3%	13.9%	14.4%	-0.2%
상해종합	3,232.9	0.5%	-0.3%	1.2%	7.0%	10.4%	-8.7%
HANGSENG	22,761.0	-0.4%	0.9%	1.0%	-2.3%	8.2%	3.9%
운송 Index							
MSCI세계운송	248.5	0.3%	2.6%	5.2%	6.2%	8.3%	11.7%
KRX운송	579.6	0.2%	-0.2%	-1.1%	-8.6%	-7.6%	-14.5%
DOW운송	9,407.2	-0.1%	4.0%	9.7%	18.7%	21.2%	25.3%
환율							
KRW/USD	1,165.9	0.8%	0.0%	0.9%	5.4%	0.8%	-0.6%
KRW/EUR	1,237.5	0.1%	-1.5%	-1.8%	-0.2%	-5.9%	-3.5%
JPY/USD	115.3	1.1%	1.6%	9.1%	12.3%	7.7%	-4.1%

	Last	1D	1W	1M	3M	6M	YTD
유가(\$/BBL)							
WTI	51.5	1.3%	-0.3%	13.8%	12.2%	1.9%	39.0%
Brent	54.3	0.8%	-0.2%	17.2%	13.2%	4.6%	45.7%
제트유(싱가포르)	62.7	1.0%	-0.2%	11.9%	12.1%	5.2%	30.0%
해상운임							
컨테이너							
CCFI	766.2	-	-1.0%	1.8%	9.0%	16.7%	5.9%
SCFI	797.6	-	0.3%	-7.3%	2.1%	43.1%	-4.7%
벌크							
BDI	1,090.0	-2.9%	-9.0%	4.3%	35.6%	78.7%	128.0%
탱커							
BCTI	443.0	0.5%	2.1%	12.4%	8.6%	-6.7%	-23.6%
항공화물운임(\$/톤)							
	11월	10월	9월	8월	7월	6월	5월
인천-LA	3,900	3,700	3,000	2,400	2,500	2,500	2,500
인천-프랑크푸르트	2,800	2,500	2,100	2,100	2,100	2,400	2,400

운송업종 주간리뷰 및 주요뉴스

- ◎ 주간리뷰**
 - 국제유가는 OPEC 비회원국들도 감산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난 주 금요일 1% 내외 상승 마감. 주간으로는 소폭 하락하여 WTI \$51.5/bbl(WoW -0.3%)를 기록하였음.
 - 미국의 원유시추기 가동건수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대폭 증가했음. 498기(WoW +21기)를 기록.
 - 컨테이너선 운임은 선사들의 아시아-유럽 노선 운임인상(GRI)이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해 SCFI 797.6p(WoW +0.3%)로 마감. 벌크선 운임은 케이프 사이즈급 신규 화물 유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BDI 하락을 이끌었음. BDI 1,090.0p(WoW -9.0%)로 마감.
- ◎ CJ대한통운 CL사업 한계 'TES'로 돌파**
<https://goo.gl/6vEV6m>
 - CJ대한통운이 소비재 물류 수주를 늘리며 계약물류(CL)사업을 확대하고 있음. 시장이 성숙 단계에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IT 기술을 도입하는 등 성장 한계를 돌파하고 있다는 평가임.
 - 업계는 CJ대한통운이 자동화, 무인화 등 첨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CL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함.
- ◎ 대한항공-조종사 노조, 임금협상 결렬...20일 파업 돌입**
<https://goo.gl/y8YBnm>
 -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회사 측이 임금협상 최종 교섭에 실패했음. 노조는 기존 37% 임금 인상안에서 물러난 29%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함.
 - 파업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임. 다만, 항공사업장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국제선 80%, 제주노선 70%, 국내선 50% 이상 조종인력을 투입해야 함.
- ◎ 저가항공사, 일본 하늘길 대폭 넓혔다**
<https://goo.gl/rTxX2>
 - 올해 신선평지 노선 62곳을 전수 분석해보면 대항사는 중국 노선을 떠나 수익성이 검증된 미주-유럽 등 장거리 노선으로 바뀌어 타는 현상이 두드러졌음.
 - 반면 저비용항공사는 한-중-일 지방공항을 잇는 노선을 개발하며 다양한 여행객 입맛 잡기에 나섰다. 특히, 일본 노선이 LCC 신규 취항노선 42개 중 12개로 가장 비중이 높았음.
- ◎ 투자전략**
 - 대한해운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한상선(구 삼선로직스)의 회생절차가 조기종결 되면서 내년부터 대한해운 연결 실적에 대한상선의 실적이 온기 반영될 전망이다. 이렇게 되면 대한해운의 매출은 1조원을 넘어서게 됨.
 - 다만, 대한해운이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사업부의 미주, 아주노선을 인수하면서 동사의 실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라는 판단임.
 - 운송업종에서는 온라인쇼핑 성장 및 해외업체 M&A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CJ대한통운에 주목해야함.
- ◎ 아시아나항공 사고 잇따라...조종사 난투극이여 비상 착륙까지**
<https://goo.gl/ZQAp82>
 - 아시아나항공이 잇단 사건 사고로 탑승객의 원성을 사고 있음. 지난 5일 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엔진 고장으로 러시아에 비상 착륙했음.
 - 지난 2일에는 미국 뉴욕행 여객기에서 조종사 두 명이 싸움을 벌이다 한 시간 가까이 이륙이 지연됐음. 이렇다 보니 탑승객의 안전 관련 대응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.
- ◎ 법원, 삼선로직스 회생절차 조기 종결**
<https://goo.gl/iiD4R8>
 - 해상화물 운송업체 삼선로직스가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5개월 만에 절차를 마치고 정상화됐음.
 - 삼선로직스는 장기운송계약을 통한 수익성 확보로 당초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할 예정이었던 채무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인가 결정 후 1년도 안 돼 변제했음. 사명도 대한상선으로 변경함.
- ◎ 美롱비치터미널 지분, MSC 인수후 현대상선에 일부 매각**
<https://goo.gl/UM7sFk>
 - 해운업계에 따르면, MSC는 현대상선과 컨소시엄을 깨고 단독으로 '롱비치터미널 지분 54%'를 인수한 후 따로 현대상선에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함.
 - 한편, 현대상선 임원과 실무진은 지난 6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 현지에서 2M 측과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, 결과는 12~13일경 나올 예정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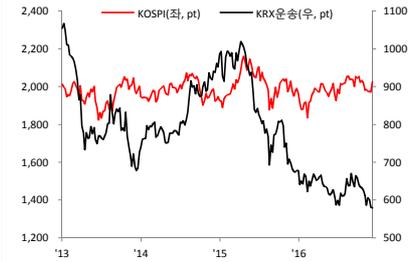
주요 MACRO지표

1. 운송 Index

◎ MSCI월드, MSCI운송



◎ KOSPI, KRX운송



◎ 글로벌 운송지수



2. 환율, 유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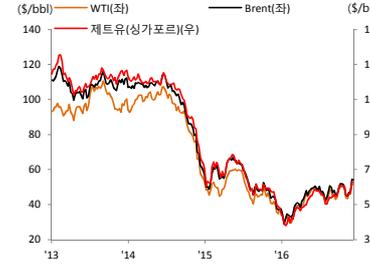
◎ 원/달러 환율



◎ 엔/달러 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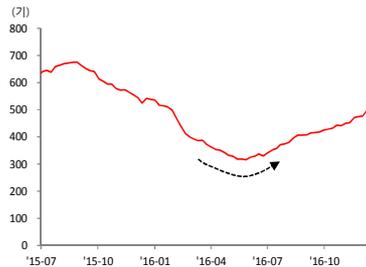


◎ WTI, Brent, 제트유(싱가포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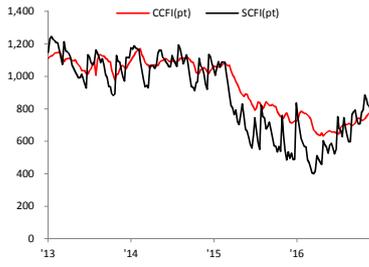
3. 미국 원유시추기 가동건수

◎ 원유 시추기 가동건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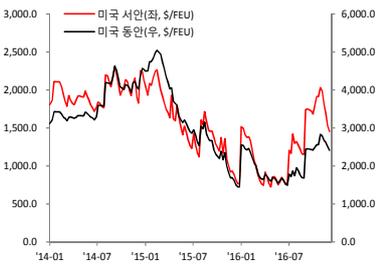


4. 컨테이너 운임

◎ CCFI, SCF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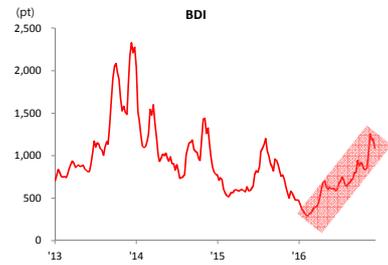


◎ SCFI 미주노선 운임(SCFI 종합지수와 1주 시차가 발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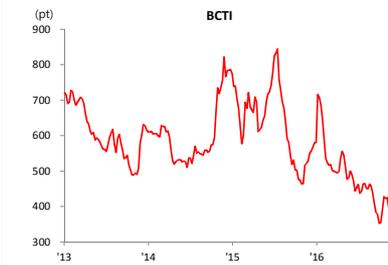


5. 벌크운임

◎ BDI(드라이벌크)



◎ BCTI(탱커)



6. 항공화물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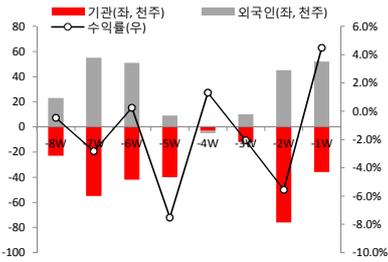
◎ 인천-LA, 인천-프랑크푸르트 항공화물 운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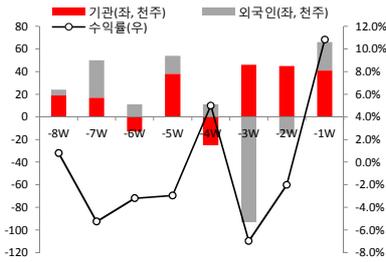
운송업체 주간 수급 및 수익률

1. 육상운송

◎ CJ대한통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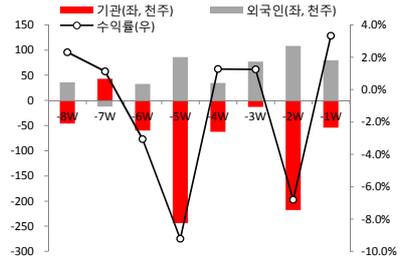


◎ 한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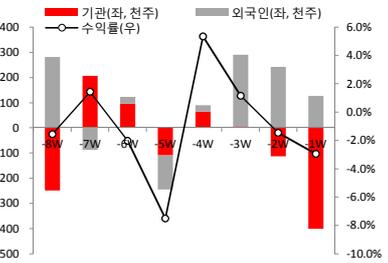
2. 복합운송

◎ 현대글로벌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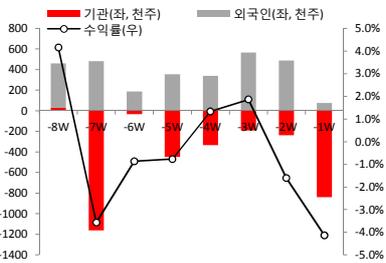


3. 항공운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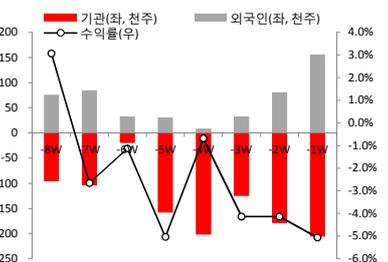
◎ 대한항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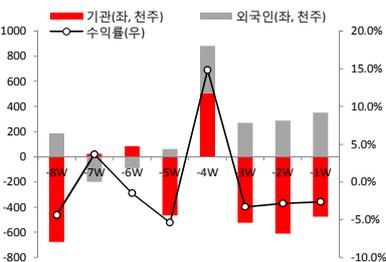
◎ 아시아나항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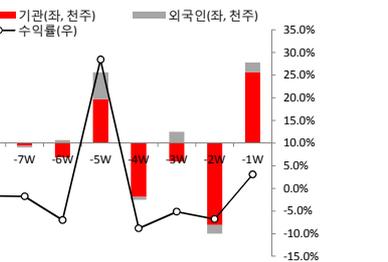
◎ 제주항공



◎ 한진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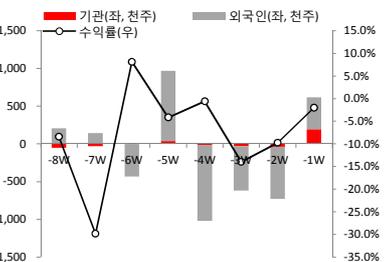


◎ 티웨이홀딩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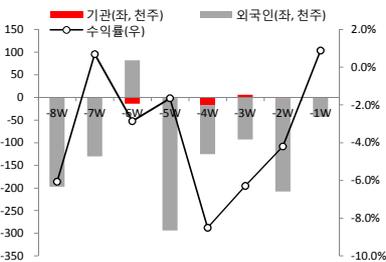


4. 해상운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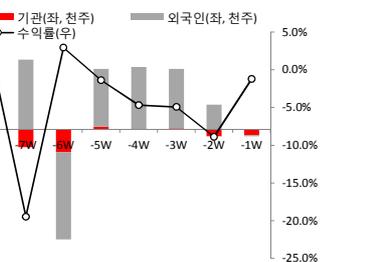
◎ 한진해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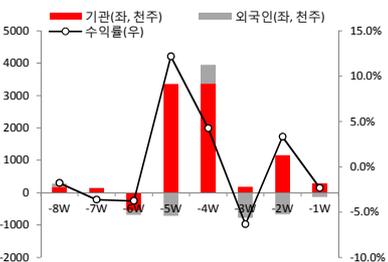
◎ 현대상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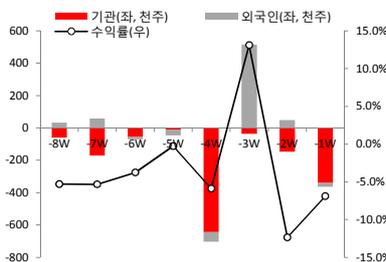
◎ 흥아해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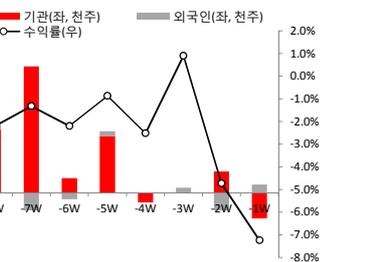
◎ 팬오션



◎ 대한해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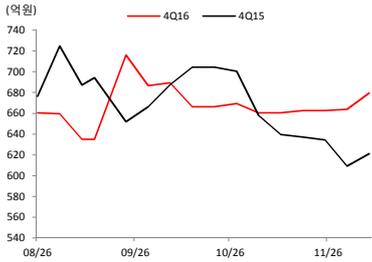
◎ KSS해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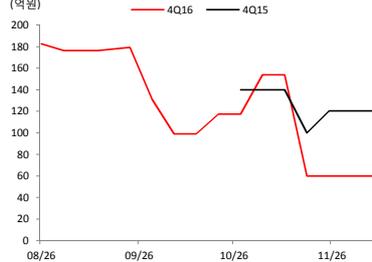
운송업체 Consensus 추이

1. 육상운송

◎ CJ대한통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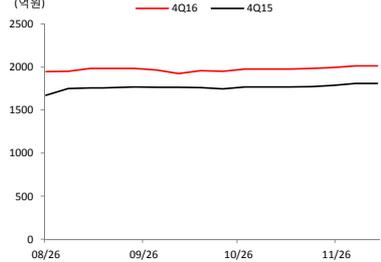


◎ 한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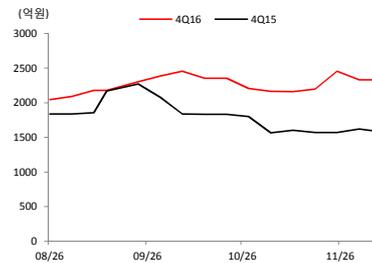
2. 복합운송

◎ 현대글로벌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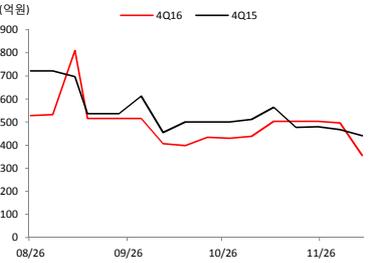


3. 항공운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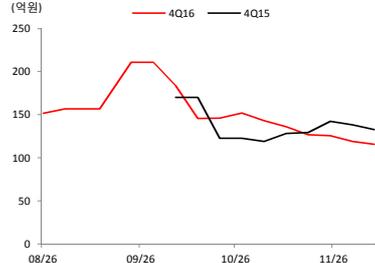
◎ 대한항공



◎ 아시아나항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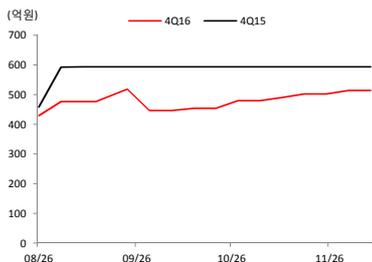


◎ 제주항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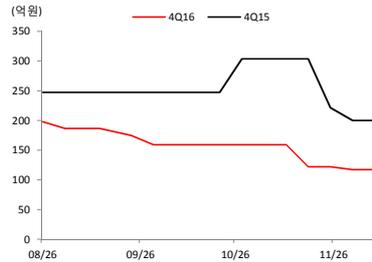


4. 해상운송

◎ 팬오션



◎ 대한해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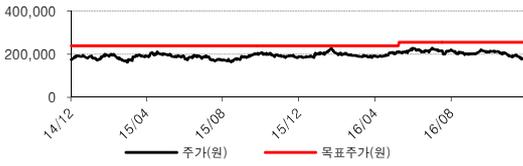


글로벌 운송업체 주간 주가상승률 및 밸류에이션 현황(Bloomberg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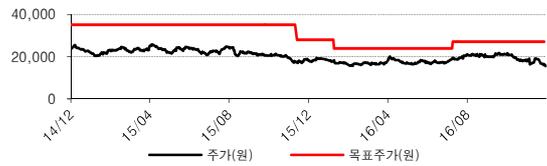
섹터	기업명	국가	현재가 (LCL)	시가총액 (조원)	1D	1W	1M	3M	YTD	PER		PBR		ROE		EV/EBITDA	
										16E	17E	16E	17E	16E	17E	16E	17E
육상 운송	CJ대한통운	한국	186,500	4.3	-0.8%	4.5%	-2.1%	-7.4%	-2.4%	45.9	27.5	1.5	1.5	3.6%	5.9%	16.3	14.0
	한진	한국	29,700	0.4	1.7%	10.8%	6.1%	6.5%	-36.0%	9.0	198.4	0.5	0.5	5.4%	0.2%	16.4	11.7
	UPS	미국	119.6	122.6	0.5%	2.8%	4.7%	11.1%	24.3%	20.5	19.4	30.0	25.0	162.1%	183.1%	10.9	10.5
	Fedex	미국	196.6	61.4	-0.2%	2.0%	7.0%	22.2%	32.0%	18.3	16.2	3.5	3.3	19.2%	20.7%	8.3	7.4
	DEUTSCHE POST	독일	30.2	45.3	0.3%	4.3%	5.2%	8.4%	16.2%	14.1	13.6	3.0	2.8	22.5%	21.0%	8.3	7.9
	C.H. ROBINSON	미국	77.0	12.8	-0.6%	4.1%	4.7%	11.8%	24.2%	21.5	20.9	8.5	8.0	42.2%	39.6%	13.1	12.9
	KUEHNE & NAGEL	스위스	133.9	18.5	1.4%	1.9%	5.9%	-4.3%	-2.8%	22.5	21.1	7.1	6.7	32.6%	33.3%	14.0	13.2
	YAMATO HOLDINGS	일본	2,355	9.9	1.2%	2.1%	3.2%	-4.6%	-8.5%	23.0	21.4	1.7	1.6	7.5%	7.6%	8.0	7.7
항공 운송	대한항공	한국	29,500	2.1	0.7%	-3.0%	1.9%	-10.6%	6.5%	N/A	5.7	1.0	0.8	-3.0%	17.7%	5.7	5.7
	아시아나항공	한국	4,400	0.9	0.9%	-4.1%	-2.7%	-15.4%	-5.0%	6.3	10.8	0.9	0.8	15.6%	8.5%	6.4	6.4
	한진칼	한국	16,650	1.0	-0.9%	-2.6%	5.0%	-9.5%	-12.7%	N/A	6.4	0.8	0.7	-6.1%	10.7%	8.7	8.5
	제주항공	한국	25,300	0.7	0.2%	-5.1%	-13.4%	-17.5%	-36.9%	11.2	8.6	2.4	1.9	23.2%	24.2%	4.0	2.9
	DELTA AIRLINES	미국	51.8	45.5	0.8%	7.2%	11.6%	37.2%	2.2%	9.9	10.0	3.0	2.4	31.7%	24.6%	5.2	5.4
	UNITED CONTINENTAL	미국	75.2	28.5	3.3%	8.5%	24.8%	43.3%	31.2%	9.2	11.9	2.6	2.2	28.7%	20.0%	4.5	5.5
	AMERICAN AIRLINES	미국	49.6	30.2	3.3%	7.7%	15.6%	29.0%	17.2%	9.0	11.3	5.5	4.4	62.8%	40.9%	5.8	7.0
	CATHAY PACIFIC	홍콩	10.4	6.2	0.2%	0.4%	-0.4%	-8.6%	-22.4%	77.2	86.1	0.8	0.8	1.8%	1.3%	7.8	7.9
	JAL	일본	3,444	12.7	1.4%	3.9%	8.4%	9.6%	-20.9%	7.3	8.2	1.3	1.1	19.2%	15.4%	3.5	3.3
	ANA	일본	314.7	11.3	0.3%	1.5%	6.8%	10.8%	-10.1%	13.4	11.8	1.3	1.2	10.0%	10.7%	5.3	5.0
	SOUTHWEST AIRLINES	미국	49.8	36.0	0.4%	3.9%	13.6%	33.3%	15.6%	13.6	13.6	3.4	2.9	29.2%	24.2%	6.0	6.1
	JETBLUE AIRWAYS	미국	21.9	8.3	0.3%	4.6%	13.8%	35.0%	-3.3%	10.2	11.2	1.8	1.7	20.5%	15.2%	4.4	4.6
	AIR ASIA	말레이	2.6	1.9	0.8%	-3.4%	-6.9%	-12.1%	97.7%	5.0	6.2	1.2	1.1	28.9%	17.7%	6.0	6.4
RYANAIR	아일랜드	14.6	22.4	0.8%	5.5%	3.4%	8.3%	-2.9%	13.7	12.2	4.4	3.3	34.0%	31.9%	8.8	8.0	
해상 운송	현대글로비스	한국	155,500	5.8	0.6%	3.3%	-1.3%	-18.6%	-19.4%	9.9	9.5	1.6	1.4	17.7%	16.1%	6.7	6.2
	한진해운	한국	627	0.2	0.0%	-2.0%	-24.4%	-52.3%	-82.8%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
	현대상선	한국	6,910	1.2	-5.9%	0.9%	-17.1%	-19.6%	-76.1%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
	대한해운	한국	15,500	0.4	-3.4%	-6.9%	-13.2%	-23.1%	-18.4%	10.4	6.7	0.6	0.6	6.3%	9.0%	11.8	9.4
	팬오션	한국	3,945	2.1	0.8%	-2.4%	-1.5%	6.2%	6.9%	12.1	10.0	0.9	0.8	7.3%	8.2%	9.2	7.5
	KSS해운	한국	6,910	0.2	-0.7%	-7.2%	-13.1%	-13.4%	-19.7%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
	홍아해운	한국	1,215	0.1	-1.2%	-1.2%	-18.5%	-44.9%	-33.2%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
	N.Y.K	일본	248.0	4.3	2.1%	11.7%	29.2%	19.2%	-15.9%	N/A	113.5	0.8	0.7	-38.0%	0.5%	16.7	10.8
	M.O.L	일본	350.0	4.3	2.6%	11.1%	31.6%	36.7%	14.0%	39.6	39.6	0.8	0.8	2.0%	1.2%	17.9	15.3
	K-Line	일본	283.0	2.7	3.3%	10.1%	17.9%	4.4%	8.8%	N/A	N/A	1.0	1.0	-21.0%	-6.7%	30.1	15.6
	DRYSHIPS	미국	4.1	0.0	-5.4%	-15.6%	-70.2%	-43.7%	-98.4%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
	MAERSK	덴마크	10,590	35.9	0.2%	6.9%	20.5%	3.3%	18.0%	33.1	17.6	0.9	0.9	2.7%	4.8%	5.9	5.3
	CHINA COSCO HOLDINGS	홍콩	2.9	8.6	-1.7%	-7.1%	4.3%	-4.6%	-17.9%	N/A	N/A	1.6	2.0	-34.2%	-24.4%	N/A	46.8
	C.S.C.L	홍콩	1.8	6.9	-1.1%	-1.1%	6.5%	-2.7%	-16.7%	30.3	13.0	1.0	1.0	-0.4%	3.1%	29.0	22.9
O.O.I.L	홍콩	33.0	3.1	-0.9%	-0.9%	11.3%	3.1%	-11.4%	N/A	22.4	0.6	0.6	0.6%	2.3%	11.8	8.5	

자료: Bloomberg

CI대한통운



대한해운



의견제시일자	투자의견	목표주가
2016-05-19	Buy	255,000

의견제시일자	투자의견	목표주가
2016-07-19	Buy	27,000
2016-01-19	Buy	24,000
2016-11-23	Buy	28,000

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,

- ▶회사는 해당 종목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▶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- ▶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 : 하준영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종목추천 투자등급 (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)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.(2014년5월12일부터 적용)

-Buy(매수): 추천일 증가대비 +15%이상 -Hold(보유): 추천일 증가대비 +15% ~ -15% 내외 등락
-Sell(매도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이상

2.산업추천 투자등급 (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)
- Overweight(비중확대), - Neutral (중립), - Underweight (비중축소)

구분	투자의견 비율(%)
매수	88.4%
중립(보유)	11.6%
매도	0.0%

2016-09-30 기준